<제2강_슬기와 맑힘에 대한 뜻매김>

# 삶의 슬기와 마음 맑히기

구연상(숙명여대)

## 1. 사랑에 대한 뜻매김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어야만 사랑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신념을 공유할 때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자기가 존중 받는 한에서만 남을 사랑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떠받들릴 때에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을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가?

왜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거추장스러운 조건들을 떼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고도 외적 조건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 대신 겉치레를 따르려 하는가?

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 채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에서 순수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장사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타락시키고, 그 사랑의 감정을 검게 물들이려 하는가?

왜 우리는 서로를 진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온몸으로 갈구하면서도 바로 그 사랑을 파괴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온갖 겉치레 옷 때문에 몸을 망치려 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의 심장을 달고도 사랑의 더운 피를 차갑게 식힐 줄밖에 모르는가?

왜 우리는 사랑의 따스함을 잃은 뒤에야 사랑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가?

| |
|---|
| 왜 우리는 사랑 앞에서 사랑을 내팽개칠 정도로 어리석어지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가슴 저리면서도 사랑을 모욕하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을 돌보지 않는가? |
| 왜 우리는 사랑 없이 살려고 하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을 지킬 수 있는데도 사랑을 저버리려 하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자만하는가? |
| 왜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살 수 없는가? |

● 사랑을 뜻하는 우리말

**- 다솜**

이것은 "다 "에서 온 말로 '따뜻하게 하다'는 동사였다. 이것의 형용사는 "다 다(따뜻하다)"이고, 그 명사형은 "다솜"이다. 다솜은 '사랑하다', '사랑스럽다', '사랑' 등으로 사무쳐 왔다.

사랑이 따뜻함이라면, 미움은 싸늘함이다. 봄날은 따뜻하다. 모든 것은 새롭게 돋아나고 생생하게 살아난다. 가을날은 싸늘하다. 모든 것은 슬어지고 죽는다. 따뜻함은 생겨남이고 삶이다. 모든 것의 피어남은 다 다솜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꾸로 싸늘함, 즉 미움은 무너짐이며 죽음이다.

**- 괌**

"괴다"는 말은 현대 한국말에서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를 뜻한다. 괌의 대상은 주로 귀여운 것이다. 임금이나 부모님께서 그 신하나 자녀를 어여삐 여겨 그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사랑을 말한다. 이때 윗분은 그 아랫사람이 잘 되도록 해 주려 한다. 『화랑세기』, 1세 위화랑 조에는 "수행(受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사랑을 받는 것' 또는 '은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행"은 운명이나 신 또는 임금처럼 높은 분께 받는 온전한 사랑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괌은 곧 행과 같다.

**- 사랑**

현대어의 '사랑'은 15세기에 ' 랑'이었다. ' 랑'의 뜻은 '애(愛)', '사(思), 모(慕)'로 넓혀져

왔다. ' 랑'은 중국의 백화문 ' 량(思量)'['깊이 생각하며 헤아리다']에서 왔다고도 하지만, '량>랑'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사랑"의 가장 넓은 뜻은 생각이었다.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옷 벗은 사람을 생각하고, 몸 괴로운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즐거울 때에 남을 즐겁게 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괴로울 때에 남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 '끊임없이 남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스스로를 사르는 것이다. 사랑은 다솜의 원천이 되는 불타오름이자 굄의 근원이 되는 자기희생이기도 하다. 사랑은 다솜을 낳고, 다솜은 생각을 낳으며, 생각은 길을 낳는다. 사랑은 다솜으로서 이 세상의 거칢, 모짐, 미움을 녹이고, 굄으로서 이 세상의 모짊을 어짊으로 바꾸며, 사름으로서 시간과 지혜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차가운 마음을 녹이면 싸늘한 세상이 포근해지고, 거친 눈을 곱고 부드럽게 뜨게 하면 모진 세상이 어질어진다. 세상이 따뜻하고 눈과 마음이 어질게 되면 세상에 봄이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모두가 평화로워진다.

### ㉠ 다솜 - 에로스(*eros,* ἔρως) / 아모르(amor)

에로스는 '살아있는 몸'에서만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랑이다.[1] 플라톤은 에로스를 '비이성적 갈망'으로 보았다(『파이드로스, *Phaidros*』, 238b/c).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의해 충동적-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리는 힘이다. 에로스는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온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자연적으로 끌리는 본성을 갖는다. **다솜**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끄는 것에로 이끌리려는 마음, 즉 그것에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을 말한다. 사람은 지혜와 같은 것에도 마음이 끌리지만, 성적인 욕망, 호기심, 악 등에도 유혹을 당한다.

**다솜**은 욕망이나 지혜뿐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로 **다가가려는 바람**이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모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으로 보았다(『향연, *Symposion*』, 197b). 즉 에로스의 사람은 늘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에로스의 충동에 지나

[1] 에로스는 플라톤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사이에 놓인 다이몬(δαίμων)'과 같은 것이다. 플라톤,『향연』, 202d-e/203a 살핌.

치게 사로잡히면, 그는 정신적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사람이 이렇게 '감각적 아름다움'에 탐닉하면, 그는 결국 끊임없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만들며,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마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다솜은 미움과 더불어 세상의 근본 원리이다.** 남녀의 성애(性愛)가 남성과 여성의 고유함에서 생기는 에로스의 특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양극성은 자연에도 있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명백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침투하는 자연의 양극적 기능을 볼 수 있는 강과 바다, 밤과 낮, 어둠과 빛, 물질과 정신 등이 양극성에 해당한다. **다솜**은 남성적 아름다움과 여성적 아름다움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이'**이다. 이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부부의 다솜은 이 새로운 생명체 아기에게로 옮겨진다. 이것이 곧 '굄'이다. 굄을 받은 자녀는 그에 대해 모심(모아들임)의 마음을 갖추게 된다.

다솜이 맑아지면 그것은 맑힘이 된다. **맑힘**은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깨닫고자 하는 사랑이다.

### ㉡ 벗하기 - 필리아(*philia*, φιλία) / 딜렉씨오(dilectio)

"필리아"는 "필로스(Philos, φίλος)"로부터 왔는데, 그 뜻은 우애(友愛)나 우정(友情)이다.[2] 필리아는 비인격적 생물이나 사물과는 나눌 수 없는 사랑으로서 오직 정신의 힘으로만 생겨날 수 있다. 에로스가 본능적으로 불러일으켜진다면, 필리아는 스스로 갖게 되는 사랑이다. 부부애(夫婦愛)는 제3자에 대한 배타성과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인격적 사랑 등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 활짝 피어난다. 즉 부부애는 에로스와 필리아가 조화를 이룰 때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우정(友情)은 벗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랑으로서 부부 관계와 달리 제3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격적 사랑을 우위에 둔다. 우정은 아름다움보다는 좋음을 더욱 지향하고, 벗들 사이에 마음의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를 이룩한다.

필리아는 **벗하기**와 같다. "**벗**"은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사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까지 벗을 삼을 수 있다. 다만 '참다운 벗'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벗**은 부부와 달리 여럿일 수 있고, 서로의 삶을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다만 벗은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질 수는 없다. **벗하기**는 단순

[2]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8-9권.

한 가까움을 뜻하기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벗하기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미움을 낳기도 한다. 이때 벗하기는 마음이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자 하는 '**소강사회**'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도 있다.

### ㉢ 굄 - 아가페(*agape*, ἀγάπη) / 카리타스(caritas)

성서에 따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에로스와 필리아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그것을 향해 가거나 머리로써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머물지는 못한다. 아가페는 하느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사랑으로서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신적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아가페는 아름다움(에로스), 좋음(필리아)뿐만 아니라 성스러움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괄한다.  참 사랑이 비록 자유로운 생명체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그 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가페는 신이 모든 인간이 자유롭도록 하는 사랑이자 그로써 스스로의 본성을 이루도록 해 주는 사랑이다.

**굄**은 곧 아가페이다. 굄은 마치 어버이가 자신이 창조한 아이들을 몸맘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기희생적 사랑을 말한다. **굄**은 스스로를 남을 위해 바치는 사랑으로 사람에게는 **사람다움을 되살리는 것**이다. 굄은 사람에게 그 본성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자 그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굄은 누군가와 그 삶의 길을 **함께 가는 것**(동행)이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굄은 서로에 대한 계약을 통해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굄은 '네'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승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너'가 사람이라면, 신은 모든 사람을 가장 좋고 아름답고 오올한(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신의 사랑이 바로 굄이다.

### ㉣ 어짊 - 유교의 인(仁)

인(仁)은 "스스로를 이기고 사람다운 몸맘가짐을 되찾을 때(克己復禮)"[3] 이루어진다. 인을 이루기 위한 길은 "공경으로써 자기를 닦고(修己以敬)", 이로써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3] 「論語」, 顔淵 1.

주며(安人)", 나아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安百姓)" 길이다. 공자에게서 인이란 "사람 사랑(愛人)"[4]이다. 그런데 맹자에 따를 때, 인은 사물과 백성과 가족에 대해서 각기 애(愛)와 인(仁)과 친(親)으로 갈라져 나간다.[5] 인의 구체적 원리 가운데 하나인 충(忠)은 "스스로 서고 싶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라(己欲立而立人)"이고[6], 다른 하나인 서(恕)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이다.[7]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서 어짊이라 새길 수 있다. **어짊**은 너그러움을 뜻한다. 너그러움은 누군가 바라는 바를 잘 들어줄 뿐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도 쉽게 용서해 주는 '**큰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어짊은 단순한 너그러움이 아니라 '**슬기로운 너그러움**'이다. 슬기로움은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어짊은 백성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몸맘가짐을 뜻한다. 어짊은 높은 자리에서 베풀기만 해서는 이룰 수 없고 언제나 스스로 실천해야만 한다. 공자에 따를 때, 어짊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몸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殺身以成仁).[8] **어짊**은 다솜과 벗하기와 굄을 한데 어울려 놓은 사랑이라 할 수 있다.[9]

### ㉤ 베풂 - 불교의 자비

불교의 자비(慈悲)는 무아연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지극한 사랑이다. '자'(慈, maitrí)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닌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사랑을 가리키고 비(悲, karuna)는 남의 고통을 같이 느끼며 고통을 없애려는 연민을 가리킨다. "보살도 일체중생을 부모의 심

---

[4] 「論語」, 顔淵 22.

[5] 「孟子」, 盡心 下 45.

[6] 「論語」, 學而 4.

[7] 「論語」, 衛靈公 23.

[8] 「論語」, 衛靈公 8.

[9] 묵자(墨子)는 "애인여기(愛人如己)", 곧 남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곧 겸애(兼愛)이다. 묵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효(孝)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신하가 임금에게 충(忠)하라고 가르치는 대신 임금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또 남의 몸을 내 몸같이 생각하여 그 몸에 괴로움을 주지 말고, 남의 물건을 제 물건같이 생각하여 그 물건에 손해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당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남에게 대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이때 사랑은 생각하기이다.

정으로 사랑하나니, 중생이 병이 있으면 보살도 병이 있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병이 낫습니다."[10] 대승불교는 세 가지 자비, 중생연(衆生緣) 자비, 법연(法緣) 자비, 그리고 무연(無緣) 자비를 말한다. 중생연 자비란 부모, 처자, 친족처럼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를 뜻하며, 법연 자비란 여하한 성격의 인연과 무관하게 법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베푸는 자비를 뜻한다. 이들에 비해서 무연자비는 일체의 인연이나 법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를 가리킨다.[11]

**베풂**은 중생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서로가 둘이 아니라는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중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것**이기도 하다. 베풂은 베푼 뒤 뉘우침이나 아까워함이나 대가나 명예나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베풀미는 의미와 무의미, 있음과 없음, 참됨과 거짓됨, 제대로 앎과 모름 등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바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와 힘껏 함께 나눠야 한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布施)에는 재물을 베푸는 재시(財施)와 법을 베푸는 법시(法施),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베풂**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일', 즉 모두를 평등하게 여기는 일,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깨닫는 일이다.

## 2. 슬기와 맑힘에 대한 뜻매김

㉠ 슬기와 어리석음 걷어내기

- 슬기는 맑힐거리이다. 슬기는 흐릴 수도, 맑을 수도 있다.(35)

> 슬기는 흙탕물처럼 흐릴 수도, 막힐 수도, 뒤섞일 수도, 제대로 가르지 못할 수도, 심지어 깨질 수도 있다. 슬기를 잃어버리는 게 곧 어리석음이다.

- 슬기의 반대는 어리석기이다.(35쪽-36)

> **어리석음**은 어리둥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사리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어림은 나이의 적음을 뜻하지 않고 "눈에 눈물이 괴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장맛비 운전, 엉클어진 실타래

---

[10] 「문질품(問疾品)」,『유마경(維摩經)』. 길희성, 「예수, 보살, 자비의 하느님」, 『신관의 토착화』,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533 쪽 재인용.

[11] 신수대장경 12권, 452.;「보살관」, 149면; 길희성, 앞의 글, 318 쪽에서 재인용.

> 석음은 눈과 같은 것이 안쪽으로 녹아내리는 것

> **"어리석음"**은 밖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안으로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말한다. 어리석음의 상징은 바보나 천치가 아니라 마구잡이가 된다.

- 어리석음 걷어내기는 슬기닦기이다.(37-39)

> **슬기로움**은 사람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나은 쪽으로 살아나갈 줄 아는 것, 따라서 삶이 나아가는 수많은 갈래들을 그것들의 좋고 나쁨에서 뚜렷하게 갈라 아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리석음을 걷어낼 줄 알아야 한다.

> **"걷음"**은 늘어 놓이거나 흩어져 있던 것이 치워지는 것 또는 그러한 것을 치우는 것이다. 즉 고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달리 말해, 스스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그 가로막이들을 없애 나가는 '닦음'을 뜻한다.

- 슬기는 나이에 따라 닦아질 필요가 있다. 즉 슬기는 죽음과 관련된다.(42-45)

> 슬기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줄 앎'으로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슬기의 목표인 '훌륭한 삶'은 그 바탕에서는 비슷할지라도 그 펼침에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41)

> 사람이 슬기롭고자 하는 까닭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끝이 있다. 그 끝이 곧 죽음이다. 나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 해의 수로서 '살'로써 헤아려진다. "살"은 새롭다는 뜻이다. '나이'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해의 수를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나'의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다. 삶은 나잇살처럼 한 쪽으로만 흐른다. 죽음은 나이의 샘물로서 처음의 샘이자 마지막의 샘이기도 하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로 다다른다는 것이다. 죽음은 끝마침, 끝맺음, 끝내기이다. 살아나감=태어남으로부터 죽음까지의 길을 다 걸어감(고종명)이다.(45)

㉡ 슬기의 낱말 뜻(46-50)

- 슬기는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 보다 나은 삶을 찾는 일, 그 삶을 살아나가는 일을 해낼 줄 아는 힘이다.(46)

> 힘=능력+ 재주+ 덕분

**능력(能力):** "떠맡는 힘", 즉 삶일이나 삶의 어려움(문제)로부터 달아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떠맡아 이겨내는 힘

**재주(才-):** "다루는 힘", 즉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솜씨로써 어떤 일을 잘 이루어가는 힘

**덕분(德分):** "모으는 힘", 즉 자신을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들의 힘을 알맞게 써먹는 힘

- "슬기"의 옛말

> 슬긔 > 슬기구멍(머리), 슬기주머니(재능인)

> 혜(慧)

> 심혜(深慧) : 슬기는 깊고 얕음이 있다.

> 조혜(早慧) : 슬기는 그 생겨나고 자라는 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슬다" > 스러지다, 닳다, 스러지게 하다(48) "슳다": 닦거나 문질러 벗겨지거나 스러지게 하다.

⇒ **슬기**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갈고 닦아' 그것들을 뛰어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야 얻어진 골갱이(정수, 精髓)를 말한다. 슬기를 얻기 위해서는 슬기가 자신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갈고닦기 > 슳음).

㉢ 슬기에 대한 뜻매김(51-61)

> 슬기는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스스로 살아나갈 줄 아는 힘"이다.(54)

> "저마다"는 "오직 나에게만"을 뜻할 수 없다. '저마다'는 누구인가? 그는 '저마다의 나'를 말한다. '외곬-나'(홀-나)⇔'서로-더부는-난'(매인-나)⇒'우리(나와 너가 한 곳에 매였을 때 그 둘을 하나로 가리키는 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곳(한곳)은 가정, 기업, 국가 등이 되고, 그때마다 '나'는 '집(안)-나', '기업-나', '나라-나'가 된다.(57.2)

- "저"가 **"나"로서**만 받아들여지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슬기가 추구되고, "저"가 **"가족"이나 특정 "공동체"로서** 받아들여지면, 공동체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 슬기가 주창된다. '슬기 맑힘'으로서의 철학은 나(자아, 自我)와 우리(공동체, 共同體) 그리고 '보다 나은 것'(선, 善)과 참됨(진리, 眞理) 그리고 말과 행위(行爲), 한 마디로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저마다에게 보다 나음'의 관점에서 두루 밝히는 '큰 일'을 뜻한다. **철학은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과 관계한**다.(82.1)

> "저마다"라는 말은 평등(平等)을 나타낸다. '저마다'는 '모두에게'와 같은 뜻이다.(86.2)

> 슬기는 '저마다의 나'와 관계되어야 한다. 병 고치는 의사가 환자를 개별적으로 진료하

는 것과 같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55.2)

> 슬기는 학자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의사로부터: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읽으면 허리디스크에 걸린다. 말더듬이 유전자를 발견했다. 슬기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56.1) 슬기는 우리가 '더부는 삶'(56.3)을 살아가기 때문에만 서로 주고받거나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57.3)

> 슬기는 저마다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도 배운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리석음의 시대"이다. 문제들을 해결한 만큼 더 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돈의 사슬에 얽매어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미래세대와 생물종의 멸절 앞에서도 '과소비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나 몰라라 시대"이다.(58.2)

> 슬기의 양이 폭발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개슬기"만을 찾을 뿐 "참슬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59.끝) 미드스왕은 가장 어리석은 이 가운데 하나이다.(60.2)

> 참슬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차분히, 넓고 깊고 높게, 즉 두루 살필 줄 알아야 한다.(60.3) 두루 살필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 '두루 살핌'이나 '올바른 살핌'은 참슬기를 얻기 위한 전제이다.(61.2) 살핌은 '어떠한 삶'이 더 나은 것인지 그 갈피와 갈래를 갈라 보는 일이자, 그 일들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다.

> 살피는 주체가 곧 마음이다. 맑힘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여금 그 '두루 살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같다.( )

㉣ 슬기와 거울 비유(62-69)

> 마음이 맑다는 것은 마음이 그 살펴야 할 것을 잘 살핀다는 것을 뜻하고, 마음이 흐리다는 것은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

> 참슬기는 '깨긋한 마음', 즉 맑혀진 마음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 마음의 맑음에는 "깨끗함", "닦임", "말끔함", "가지런함", 또는 "가라앉힘", "가다듬음", "혼란 없앰" 등이 속한다. 이러한 '맑은 마음'을 불교에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이 "지혜"를 흔히 거울에 비유한다.(63.1)

> 지혜(智慧)의 낱말 뜻 설명(63.2-64.2)

> 불교에서 마음을 비유하는 '거울의 종류'(64.2-68.2)

- 은감불원(殷鑑不遠): 은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은나라 신하 서백이 폭군 주왕에게 진언했던 말: 하나라의 걸왕이 매희라는 절세 미녀에게 빠져 은나라 시조 탕왕에게 멸망했다.『시경(詩經)』탕편(蕩篇).(64.3) ⇒ 역사서(歷史書)는 후대가 교훈을 삼아야 할 거울, 즉 "사감(史鑑)"이나 "통감(通鑑)"으로 불렸고, 귀감(龜鑑)은 어떤 일을 본보기의 거울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비춰 본다는 것을 뜻하며, "경고(鏡考)"는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생각하고 바로잡는다는 뜻이며, 또 경계(鏡戒)나 감계(鑑戒)는 지난 일을 빌어 법이나 계율(戒律)로 삼는다는 것을 한다. 거울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을 일러주는 스승과 같다.

- 거울에 비친 진리: 진리는 거울 속 모습에서 찾을 수 없고 그 모습의 실체에서 찾아야 한다. 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텅 빈 진리'는 거울이 깨지면서 사라져버리는 '거울 모습'과 같다. 용수(龍樹)의 □대지도론(大智度論)□(권6)(65.2)

- 나머지는 책을 살펴볼 것! □불지경(佛地經)□ "큰 둥근 거울 슬기(대원경지, 大圓鏡智)",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여실공경(如實空鏡), 즉 있는 그대로의 빈 거울 / 인훈습경(因熏習鏡), 원리를 익히도록 하는 거울 / 법출리경(法出離鏡), 진리를 떠난 거울 / 연훈습경(緣熏習鏡), 연기설을 가르치는 거울)

> 무명(無明): 마음의 밝지 않음 ⇒ 마음의 맑지 않음. '마음 거울'이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등 스스로 불러일으킨 감정 때문에 갖가지 빛깔로 물들면, 거기에 비치는 것들은 저절로 본디의 모습을 잃게 마련이다.(69.1)

> 무엇이 마음을 더럽히거나 흐리게 하는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 마음을 흐린다. ⇒ 맑힘에서의 핵심 주제가 된다.

㉤ 맑힘에 대한 뜻매김(70-82)

> 마음이란 무엇인가?(70.2)

- 마음은 거울과 다르다!( ) **사람의 마음**은 그 몸이 자라는 것에 따라 함께 크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몸이 다 자란 뒤에도 끝없이 '깊-넓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처를 받거나 치유될 수도,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에 따라 그 빛깔이 바뀔 수도 있고, 그 결이 고와지거나 거칠어질 수도 있으며, 수많은 성향들이 있어 그 나름의 길[버릇]이 들고, 마치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글자판처럼 무엇인가를 새기거나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놓이는 자리도 있고, 그 생각을 키우는 밭도 있으며, 사물의 참거짓 모습을 분별하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 말도 하고, 귀가

있어 들을 줄도 압니다.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으며,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속마음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짐짓 꾸며 드러내는 겉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은 살아 있는 머릿살(신경, 神經)을 통해 그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머릿속-마을'과 같습니다.(70.2-71.1)

> 마음의 본질은 "두루 살핌"에 있다.

- "두루"의 뜻매김(72.2)

- "살핌"의 뜻매김(72.3): 살핌은 갈피와 갈래를 잘 갈라 보는 일을 뜻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도 뜻한다.(61)

- "두루 살핌": 곳곳마다 때마다 샅샅이 살핌.(72.3)

> 두루 살피는 눈은 '해석학적 눈'이다.(73.3)

보기) 길 위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알아본 순간 그것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볼 수는 없다.(73.3)

- 마음은 살펴본 모든 것을 그 갈래를 나누고 갈피를 잡아 갈무리해 들인다. 마음은 창고와 같다.(74.1)

- 마음은 빈 그릇이거나 빈 거울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가 어렵다. 욕심, 아이디어, 포아슈텔룽은 '마음에 든 것'이다.(74.2) 마음에 든 것은 마음에 들기 위해 마음의 살피는 눈, 즉 마음의 '거름-틀'과 '생각-틀'을 거쳐야 한다.(75.1)

- **마음**은 '마음에 든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그것들을 "좋고 나쁨"과 같은 말들에 따라 바르게 갈피를 잡으며, 그렇게 가름된 '좋고 나쁜 것'을 '저마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써 먹는다. 우리가 '좋은 것' 또는 '좋은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된다. 마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나간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76.2)**

> 우리가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살피는 마음 자체'를 맑혀야 한다. '마음 맑히기'는 누군가에 의해 한 번에 창작되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되풀이되어야 하는 일하기(노동)이다.(77.1)

> 마음 맑히기는 마음의 본질뿐 아니라 사물의 본질까지 꿰뚫어볼 수 있게 해 준다.(  )

-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맑힘**은 '깨끗하게 함'으로서 더러운 마음들을 치우고, 마음 속 가득 흐트러지고 어지럽혀진 마음들을 고루 가지런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진 풍파(風波)에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멍들어 다친 마음을 아물게 하고, 무엇보다 속겉이 달랐던 마음을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맑힘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양심을 되불러 들이는 것이고, 잡스럽고 나쁜 마음들을 가라앉혀 곱고 좋은 마음결을 되살려 내는 것이며, 자꾸 어지러워지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고, 비뚤어진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맑힘은 검어진 마음 빛깔을 희게 만들고, 악(惡)해진 마음을 선(善)하게 만들며, 다친 마음을 낫게 하고, 닦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얼룩도 지워 주며, 갈가리 찢어진 마음도 아물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77.2)

-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사물은 언제나 물질이나 입자보다 크다. 사물이 물질보다 큰 까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바탕은 발견되는 것이라기보다 살펴지는 것이다. 다만 그 살핌의 방식은 마음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객관적 관찰" 또는 "과학적 관찰"은 사람의 목적에 어떻게 쓰이는지의 관점에서 수행되기보다 그 자체로써 설명된다.(80.2) 이는 곧 '두루 살핌'의 멈춤으로서 과학자 자신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스스로의 '살피는 눈'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80.3)

㉥ 슬기와 '자포자기의 삶'(83-95)

> 슬기의 반대는 어리석기: 슬기는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찾아나가는 것이고, 어리석기는 '저마다에게 보다 나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83.2)

보기) 도둑(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사람)은 슬기로운가?(83.2-84.2)

> 어리석음은 누군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식에 찔릴 때에만 깨달아진다.(84.2)

> '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삶'이란?(84.3-890

- 어리석은 부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어리석다.(85.2)
-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쌓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인들도 어리석다.(85.2)

> 소비의 시대

- 물신 숭배 > 뒤집힌 도덕(87.2) > 돈의 노예 > 돈 세상 ⇒ 돈 버는 슬기(87.4)
- 소비는 없앰이다.(88.2)

- 삶은 삼이 된다. 모든 것은 돈으로 대체된다.(88.3)
- 자기 과시는 가능한가?(89.3) 재산과 자기 자신의 동일시.

> 자포자기의 시대(90.1-

- 자살의 문제(90.1)
- 늙음의 문제(91.3-93.2)
- 자포의 뜻: 스스로를 해치는 것,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함(94.1)
- 자기의 뜻: 실천을 미루는 것,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94.3)